

“도넛을 사거나 재료를 살 때 돈과 교환한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돈이 차례로 흘러가서 도넛 가게, 밀가루 공장, 밀 농장으로 세명에게로 갔어.”

결국 목적은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이 세 사람이 일을 해서 도넛이 완성되는 게 목적 이야.”

그럼... 공무원인 나는 무엇을 만들고 있는 거지?

나는 믹스커피를 휘저으며 보스의 말을 곰곰이 떠올린다.

저녁 10시, 잠들기 전 다시 책을 읽기 시작했다.

보스가 침대 위 나에게 조용히 말한다. “빵가게 주인이 빵을 만들고 네가 세금 안내를 위해 네 시간을 쓰는 것도, 다 돈이라는 도구가 존재해서야. 돈은 차갑지 않아! 돈은 모두를 연결시키는 힘이 있어.” 보스의 말에 유토와 내가 고개를 끄덕인다. 보스는 신나서 계속 말한다.

“그리고 돈을 지불하는 건 누군가에게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있고, 배관공이 있는 거지.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건 돈 자체가 아니라 돈을 받는 사람들이야!”

유토가 고개를 갸우뚱한다. 나도 따라서 고개를 갸우뚱한다.

물음표가 떠오른다. “나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월급을 받는 걸까?”

2025.8.22일

신고서를 접수하고 싶어요 납부서 보내주세요

납부서를 팩스로 보내주세요

위택스 신고가 안되요. 사업장 등록해주세요.

휴 바쁘다 바빠! 왜 이렇게 문제 투성이일까? 어탓? 문제?

그래! 나는 민원인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중이다. 보스의 말이 떠오른다. 아! 나는 납세자를 돋고 그들이 행정서비스와 정당한 세금을 낼 수 있도록 돋는 사람이구나. 무릎을 탁 쳤다.